

즐거움 숲 체험 몸·마음 '힐링'



조명자 대표

사)산소리 숲마을(대표 조명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홀로 생활해야 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지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어 주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보는 조명자 대표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내놓는 위치에서 행복을 찾아야” 신영복 선생의 말씀이 감동시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 보람도 느껴

Q.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는지요?

A. 산림청 진로체험에 89%가 휴양림 체험을 해보지 않았다는 자료를 보고 산림치유를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꾸준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은인으로 지낸 신영복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후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어 시작하게 됐습니다. 숲 전주 멤버로 지내던 중 70세 생일을 맞은 신영복 선생님께서 이날 “받는 것보다 주는 삶, 내놓는 위치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Q.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A.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보니 아이들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계속 만날 수 있고, 또 자연과 호흡하면서 마음의 안



정도 찾습니다. 특히 '인자요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산중에서 생활하다 보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힐링되는 것 같고 보람도 느낍니다.

Q. 산소리 숲마을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요?

A. 체험오는 유치부·초등부 학생들이 숲체험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은 산림청 진로체험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위한 숲치유 힐링 체험도 인기가 많습니다. /장은성 기자



▶ 숲마을이 걸어온 길

‘자연과 사람’ 모든 숲 중심 체험 프로그램 운영

아이 중심 활동 유도 교육 지향

산소리 숲마을은 2013년 사단법인화 된 비영리 민간단체다.

숲을 가꾸어 오는 동안 산과 숲 온갖 동·식물 등의 자연생태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온몸으로 체득해 숲이 주는 깨우침을 항상 실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주 지역의 다양한 계층들과 만나면서 숲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현대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적 문화향유의 공간으로써 그 중요성을 홍보해 왔다.

모악산 기슭의 산소리 숲속학교에서는 ‘자연과 사람’이라는 모든 아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 나가고 있다.

2013년 자연의 이치가 곧 사람의 이치임을 지금의 삶에서 깨닫고자 자연과 교육의 가치를 심도 있게 끌어내기 위해 사단법인으로 유치원과 학교 숲 체험을 시작했다.

산소리 숲마을은 숲속에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들의 주체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자연주의 교육을 지향해 왔



다. 산소리 숲마을 선생님들은 숲 해설사, 숲길 지도사, 유아 숲 지도사 등의 전문과정과 숲 교육을 통해 만난 학부모 모임, 독배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가족, 다문화 등 지역 단체들과 연계해 숲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함께 자연과 하나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 교육 프로그램

모험심 기르고... 텃밭도 기르고...



▲ 숲 교실 및 놀이터 - 숲 교육은 숲 교실에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목욕 유아반, 초등 토요일 등 정기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체험반과 초중고 1일 역사캠프 등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자료 찾기 - 숲속에서 발견되는 모든 식물과 곤충, 새 등을 발견하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며 관찰하는 과정을 거쳐 서식지와 종류, 생태 등의 자료를 찾아 구조화 한다. 또, 봄이 되면 자연의 생명을 싹틔우는 씨앗도 심는다.

▲ 모험심 - 숲 놀이터에서는 자연스럽게 모험심을 기를 수 있도록 높은 나무를 올라 그물 천을 타고 스스로 내려오거나 주변의 나무들을 직접 톱질할 수 있고, 또 그물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체험 요소도 설치돼 있다. 숲 속 곳곳에 비탈진 등성이를 올라갈 수 있도록 밭줄이 준비돼 있다.

▲ 제작 활동 - 숲속에서 핀 꽃들을 관찰하고 꽃차를 만들어 마실 수 있으며 더불어 다도에 대해서도 배운다. 공동 작업으로는 광목천에 자연에 대한 느낌을 숲속에서 발견한 것이나 자연 재료를 이용해 회화나 입체로 표현한다.

▲ 물놀이 - 여름이면 산소리 숲 마을에 오는 누구나 물놀이를 즐긴다. 대상별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공간들이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어 자연 속 여름의 시원함과 상쾌함을 한껏 즐길 수 있다.

▲ 특별체험 - 숲과 관련해 목공체험과 빌레퇴치 향주머니 만들기, 나무파리 등이 있다.

▲ 장애인 숲 체험 - 숲을 이용하기 힘든 장애인들에게 숲해설 및 숲체험을 제공해 장애인들이 보다 숲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며, 숲에서 힐링하며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산림복지전문업 - 산림복지전문업이란 지자체에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 체험지도사를 자체 고용하던 것에서 산림복지전문업 업체에 용역 위탁을 줘 유아숲체험원, 수목원, 휴양림을 위탁운영 하는 사업이다.

2020년 현재 대야수목원, 전주시유아숲체험원(인후, 혁신, 학산), 방장산, 운장산, 덕유산, 변산, 회문산자연휴양림을 비롯해 부안시립공원 유아숲체험원, 정읍 유아숲체험원, 진안 산악초대문 숲 해설 등에 약 60여 명의 산림교육전문가를 파견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 녹색자금(청춘 숲놀이 상상만개) 사업 -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청소년들이 직접 독립군이 돼 3.1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또한 직접 상상하고 기획함으로써 자아 정체성과 긍지를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모악산 유아숲체험원에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의 금광 굴과 삶의 흔적을 찾아가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 나눔숲사업 - 나눔숲 돌봄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된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전국에 조성된 사회복지시설 내 나눔숲과 그 외 유휴부지를 활용해 사회복지시설 거주·이용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나눔숲 관리 및 텃밭 정원 프로그램이다.

실내·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활동으로 (사)산소리숲마을은 전북권역 내 5개 소(남원 관한세상, 송광 정심원, 일곡 한술 전문요양원, 임실 동행, 진안 말밭재가)를 대상으로 플랜트 박스에 페인트 칠하기, 화초, 채소류 심기와 같은 정원가꾸기 프로그램의 공동체 놀이, 한지에 미래숲 표현하기 등 치유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